

2019년 안산병원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안산병원 직원들의 건강과 더 나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1-4분기)가 본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노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노사 위원 및 참관인들이 자리했다. 사측 대표위원은 최병민 병원장이 맡았으며, 노측 대표위원은 노재옥 지부장이 맡았다.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19년 첫 해인만큼 상견례 형식으로 노사 입장을 공유하고 핵심 안전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사, 산안위 안전들은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좋은 논의내용 노, 직원들의 안전, 안전한 병원은 산안위 활동으로 만들자.

노사 대표 인사에서 최병민 병원장은 “병원장이 된지 1년째이다. 처음 회의에는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웃으면서 될 수 있어 반갑다”고 말하며,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중요한데 산안위를 통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측 대표인 노재옥 지부장은 “최근 직원 게시판에 직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제가 노동자들의 대표로써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의 뒤편에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 같다. 노동조합에서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직원들의 안전과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안위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본 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018년 4-4분기 산안위에서 논의되었던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진행여부, 1-4분기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노, 간호부 머리망 자율화는 직원들에게 온전히 맡겨야 할 것. 사, 조건을 발표한 적 없으나 감염 우려 때문에 그런 것.

한편, 정혜란 수석부지부장은 논의안전에는 없지만 직원들의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간호부 머리망 자율화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머리망 자율화가 되었으나 용모지적이나 길이제한등의 조건을 달아 계속 감시단속을 하는 부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율화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말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조건을 내세운 적은 없으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논의 안전에 대한 실무적 점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TFT마련하기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약 50분간 가량 진행됐으며, 안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의 원활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 사전 TFT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 다음은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안전에 대한 결과이다.

안전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의약품 지급에 관한 건】	

노동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p>① 8가지로 확정된 것인가?</p> <p>② 야간의 경우 직원들은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데 안암의 경우 야간약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산도 비슷한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p> <p>【탄력스타킹 지급에 관한 건】</p> <p>① 탄력스타킹 지급 수량이 470개 밖에 안되는데 배포 숫자가 적다. 이유가 무엇인가?</p> <p>② 직원들 중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p>	<p>① 그렇다.</p> <p>② 알아보겠다.</p> <p>① 안산병원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지급된 것이다. 지급하는데 제약이 없으니 서로 홍보하자.</p> <p>②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본인 사이즈를 몰라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요구하면 그대로 지급한다.</p>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p>【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p> <p>① 요구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가?</p> <p>② 간편복 개선 진행 과정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p> <p>③ 노사 회의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았으면 한다.</p> <p>【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p> <p>① 계속 요구하고 있는 문제기에 3개 병원이 논의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한다.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TFT를 구성했으면 한다.</p>	<p>① 활동성과, 세탁관련(상하의 분리 세탁)한 부분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p> <p>② 요구도 조사를 먼저 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의료원이 할 것이다.</p> <p>③ 간호부에 요청하신 것을 전달해 보겠다.</p> <p>① 확대와 관련하여 건강이나 안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다.</p>
논의안건	노측 요구	사측 답변
3)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p>【시설팀 부서 통합에 관한 건】</p> <p>① 최근 시설팀 주말 휴가 대체 근무자를 부팀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편법적인 대책이다.</p> <p>또한, 부팀장이 대체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휴가 대체 근무자 없이 근무인원을 줄여서 근무하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병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며, 시설물 재해 사고를 방조하는 행위다.</p> <p>안전한 병원은 시설의 안전해야 환자안전하고 직원이 안전하다. 병원의 책임자인 대표위원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p>	<p>① 알겠다.</p>
5)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건	<p>【보호대 지급 건】</p> <p>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손목 보호대 및 허리 보호대를 지급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그 전에 지급이 필요한 부서 및 대상자 조사를 선행했으면 한다.</p>	<p>① 일단 사전 회의를 진행하자. 그리고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p>

안산병원 직원 암 검진 실시합니다

안산병원은 3월 1일부터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공단 암검진을 검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암검진을 위해 휴가를 내고 타병원에 가는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하면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